2009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朴瑟

婍

2009年 2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日本語 受動文의 下位類型에 關한 研究

- 所有者受動을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瑟 婍

日本語 受動文의 下位類型에 關한 硏究

- 所有者受動을 中心으로 -

A Study on Sub-categories of Japanese Passive Sentences: Centering on Possession Passive

2009年 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瑟 婍

日本語 受動文의 下位類型에 關한 硏究

指導教授 丁 義 祥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日語敎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10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功

朴 瑟 婍

朴瑟婍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金 仁 炫 印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 수 曺 榮 錫 印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丁義 祥 印

2008年 12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i
第 1章 序論	·· 1
1. 1 研究 必要性 및 目的	·· 1
1. 2 本稿의 構成	·· 2
第 2章 日本語 受動의 分類方法 및 種類	·· 4
2. 1 受動의 分類方法에 關한 先行硏究	·· 4
2. 2 受動의 下位類型의 種類와 意味・用法	17
2. 2. 1 直接受動	17
2. 2. 2 間接受動	19
2. 2. 3 所有者受動	21
第 3章 所有者受動의 體系 및 位置設定	24
3. 1 所有者受動에 關한 先行硏究 및 問題提起	24
3. 2 所有者受動의 下位類型의 體系	31
3. 2. 1 X와 Z가 非分離的인 所有關係를 가진 類型 ···································	33
3. 2. 1. 1 Z가「部分」을 나타내는 類型	33
3. 2. 1. 2 Z가「側面」을 나타내는 類型	35
3. 2. 2 X와 Z가 分離的인 所有關係를 가진 類型	37
3. 2. 2. 1 Z가「所有物」을 나타내는 類型 ···································	37
3. 2. 2. 2 Z가「關係者」를 나타내는 類型	39
3. 2. 3 X의 有無情性에 따른 語彙的 意味關係 ····································	40
3. 2. 3. 1 X가 有情名詞인 경우	40
3. 2. 3. 2 X가 無情名詞인 경우	44
第 4章 結論	
參考文獻	
用例出典	53

ABSTRACT

A Study on Sub-categories of Japanese Passive Sentences -Centering on Possession Passive-

Seul-gi Park

Advisor: Prof. Eu-sang Jung,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on categories of passivity in contemporary Japanese, but as each sub-category has similarity and connection somewhat, the resul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what researchers focus on.

This study examined the systems of sub-categories of Japanese passive sentences, focusing on the Possession passive voice on which researchers suggested different opinions. First of all, before the discussion on the Possession passivity, we compared and analysed the previous studies on what standards classification of Japanese passive is based on to clarify the types of sub-categorie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re is no single unified standard to classify passive, but it has been classified into direct passive, indirect passive and Possession passive in six points of view as follows: morphological view, semantic view, morphological and semantic view, syntactic and semantic view, and compromised syntactic and semantic view. Among them, this study classified sub-categories of Japanese passive into direct passive, indirect passive and Possession passive and identified the meanings and usages of the sub-categories based on the compromised point of view.

For the direct passive, the number of corresponding dynamic sentences is the same as that of necessary components, and a subject in a passive sentence is directly influenced by a movement or action of a verb while an indirect passive sentence has one more necessary components in comparison with the corresponding basic sentence and the subject is indirectly influenced by movement or action of a verb. Finally, the Possession passive has one more necessary components in comparison with a basic sentence, but as the subject of the passive sentence is directly influenced by a movement or action of a verb, it has both features of direct passive and indirect passive. Then,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researchers' opinions on positioning of Possession passive sentences in the entire system of Japanese passive, this study examined how to classify Japanese Possession passive and its positioning, the definition of Possession passive and its sub-categories.

First, in designating sub-categories of Japanese Possession passive, this study categorized it into two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whether X and Z noun phrases can be separated and semantic correlations between them. One is a type where X and Z noun phrases can not be separated and the relations between X and Z are sub-categorized into the part and the side. The other is a type

where X and Z noun phrases can be separated and the relations between X and Z are sub-categorized into possessions and the concerned.

When the two types of Possession passive are analysed in a semantic aspect, as the subject of the former is directly influenced by a movement or action of a verb, it can be identified to a sort of direct passive sentence. For the latter, as Z is directly influenced by a movement or action of a verb and the subject is indirectly influenced, it can be identified to a sort of indirect passive. To identify what semantic relations are shown between X and Z noun phras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correlations of different meanings shown in X and Z according to presence and quality of X noun phrases based on an enormous number of data on the Possession passive collected through case studies.

第 1章 序論

1. 1 研究 必要性 및 目的

현대 일본어에서 受動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言語構造의 특성에 따라 학자들이 비중을 두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그 결과가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受動이라는 文法範疇가 形態論的인 부분, 構文論的인 부분, 意味論的인 부분을 함께 파악해야만 하는統合的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비교적고난이도의 文法形態로 인식되어, 수동의 下位類型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하기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從來, 일본어 수동에 있어서 下位類型의 분류법은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二分類法과, 그 중간적 존재인 所有者受動을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인정하여 直接受動, 間接受動, 所有者受動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三分類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典型的인 直接受動과 典型的인 間接受動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所有者受動에 관해서는 直接受動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間接受動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間接受動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間接受動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양쪽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분류방법을 취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自動詞에 의한 수동의 일부분을 所有者受動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所有者受動에 관한 분류방법 및 체계는 학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동의 하위유형 설정에 있어서 2分類法의 입장을 취할 경우, 所有者受動의 위치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本稿에서는 所有者受動에 관한 論之에 앞서, 우선 일본어 수동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지에 관한 先行研究를 비교·분석해 보고,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수동의 全般的인 하위유형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실

하게 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동을 완전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여하는 名詞와動詞의 形態的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形態論的인 문제, 수동의 構文構造와 대응하는 能動文과의 構文的 문제를 어떻게 논할 것인가라는 構文論的인문제, 수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동화의 기능은 어떠한가라는 意味論的인문제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동은 複合的이고 綜合的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形態論的, 構文論的, 意味論的인 부분이 서로 相關關係를 이루며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所有者受動에 대한 선행연구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연구에서는 所有者受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所有者受動의 基準設定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用例를 제시하여 所有者受動의 하위유형 체계를 분석하였다.

本稿에서는 所有者受動이 일본어 수동의 또 다른 하위유형인 直接受動과間接受動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XがY=Z9~>7 ν ν (YがX/Z9~Z7 ν)」라는 表面構造를 가진모든 수동문의 형태를 所有者受動으로 취급하였으며, 그 規定 및 細部類型설정에 있어 전체와 부분에 해당하는 X와 Z名詞句가 非分離的인 관계에 있는 경우와 分離的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X와 Z名詞句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의미적인 相關關係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하위유형 체계를 분석하였다.

1. 2 本稿의 構成

本稿의 연구는 일본어 수동에 대한 전반적인 下位類型 分類와, 중심연구 대상인 所有者受動의 체계 및 위치설정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 다.

먼저 第 2章에서는 일본어 수동의 분류에 있어 문법상 어떤 부분에 그 分類 視點을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크게 形態論的 分類, 意味論的 分類, 構文과 意味論的 分類, 構文과 意味의 折衷的 分類, 形態와 意味論的 分類, 構文과 意味論的 分類, 構文과 意味의 折衷的 分類의 6가지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어 수동의 하위유형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意味와 用法을 제시하였다.

第 3章에서는 일본어 수동의 하위유형의 하나인 所有者受動에 관해 서술하였다. 먼저, 所有者受動에 관한 선행연구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所有者受動의 정의, 하위유형 체계, 위치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하위유형으로는 X와 Z名詞句의 관계가 非分離的인 유형과 分離的인 유형으로 나누어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用例는 여러 소설에서 발췌하여 所有者受動의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통해 일본어 학습자에게 수동의 하위유형에 대한 綜合的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第 2章 日本語 受動의 分類方法 및 種類

2. 1 受動의 分類方法에 關한 先行硏究

일본어 受動에 있어 下位類型의 體系와 特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그 기준이 되는 受動文의 분류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어 수동문의 분류는 統一된 분류기준은 없고, 학자에 따라 어떠한 부분에 분류 시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동문의 動作主를 나타내는 助詞가 어떤 형태인가에 관한 形態論的인 면, 受動文과 能動文과의 관련여부와, 受動化됨에 따라 나타나는 주어와 목적어의 位置轉換 등에 관한構文論的인 면, 動作이나 作用의 결과에 그 대상이 받는 영향이 被害의 뜻을 가지는가, 아닌가에 관한 意味論的인 면, 또 動作이나 作用으로부터 直接的인영향을 받는가, 間接的인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構文과 意味論的인 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방법에 따른 대표적인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해 보고, 수동의 분류방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a. 形態論的 觀點에 따른 分類

黑田成幸(1985)1)는 動作主를 나타내는 助詞가「二」를 취하는지, 아니면「ニョッテ」를 취하는지의 形態論的인 차이에 따라 일본어 受動文을 크게「二受動文」과「ニョッテ受動文」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二受動文」은 수동문의 主語가 事態로부터 작용을 받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affectivity「作用性」>의 의미를 지닌 수동문이고,「ニョッテ受動文」은 대

¹⁾ 黒田成幸,「受身についての久野説を改釈する— 一つの反批判」 『日本語学』 4-10, 明治書院, 1985, pp.69~71

응하는 능동문과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지닌 수동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二受動文」과「ニョッテ受動文」을 視點에 따른 對立的 體系로 분석하였으며, 그 예로 예문 (1), (2)를 제시하고 있다.2)

- (1) JohnがBillに 助けられた。
- (2) JohnがBillによって助けられた。

예문 (1)의「二受動文」은 John의 시점에서 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수동 문이고, (2)의「ニョッテ受動文」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서술된 수동문으로 구분된다.

b. 構文論的 觀點에 따른 分類

일본어 수동문을 構文論的인 觀點에 따라 분류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森田 良行(1973)와 井上和子(1979)를 들 수 있다.

森田는 일본어의 수동문을 形式的인 면에서 다음의 10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3)

〈能動文〉 〈受動文〉

(第1種受動)

- ① Aが 自 $V \rightarrow (Blt) A$ に 自Vれる
- ② Aが $\text{他V} \rightarrow \text{(Bは)} Aに \text{ 他Vれる}$
- ③ AがBのCを他V → Bは Aに Cを他Vれる
- ④ AがBにCを他V → Bは Aに Cを他Vれる

(から)

²⁾ 益岡隆志,「受動表現と主観性」『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1, p.194

³⁾ 森田良行、『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1990, p.1206

⑤ AはBに自Vれる → Bは Aに 自Vれる

(から)

(によって)

(第2種受動)

- ⑥ AがCを他Vれる → CはAに他Vれる
- ⑦ AがCを他Vている → CはAに他Vれている
- ⑧ AがCをBに他V → CはAにBに 他Vれる

(から)

- 9 (Aが) Cを他V \rightarrow Cが 他Vれる
- (10) (Aが) CをBに他V → CがBに他Vれる

森田는 ①~⑤를「第1種受動」, ⑥~⑩을「第2種受動」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第1種受動」의 형식적인 특징은, 능동문에서는 主格이었던「Aが」가「Aに」로 전환된다는 점과 主語에는 항상 受動者가 온다는 것, 그리고 他動詞의 목적어인「Cを」는 수동문에서도 그대로「Cを」로 남아있다 라는 세 가지이다. 第1種受動文에서는 모든 주어에 受動者「Bは」가 오고, 그 B는 인간또는 有情物에 한정한다. 또한 ①이나 ②와 같이 능동문에서 被動作者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동문에서는 반드시「Bは」와 같은 형태로 被動作者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受動者를 의식하여 受動者 측에서 표현하는 것이 第1種受動文을 성립시키는 요소인 것이다. 또한 자기와無關係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행위로부터 간접적인 피해(迷惑)를 입는다는 점에서「迷惑の受身」라고도 부른다.

「第2種受動」은 타동사에 붙고, 타동사의 목적어 C를 주어로 내세운 수동 문이다. 즉, 動作主인 A와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被動作主 C와의 關係에 있 어서 後者를 주어로 내세운 직접적 수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被動作主 C를 有情物・非情物에 관계없이 주어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非情 の受身」라고도 하며, 無生物, 物品 뿐만 아니라 抽象概念까지도 주어로 내세 우고 있다. 따라서 第2種受動을「直接的受身」「本格的受身」「非情の受身」 라고도 부른다.4)

井上和子(1979)는, 일본어 수동문을 크게「單純受動文」과「間接受動文」 으로 나누고 있다.

- (3) 次郎が太郎から(に) 野球に誘われた。
- (3)′太郎が次郎を野球に誘った。
- (4) 開会が議長によって始められた。
- (4) 議長が開会を始めた。
- (5) 太郎は赤ん坊に泣かれた。
- (5)′ 赤ん坊が泣いた。
- (6) われわれは雨に降られた。
- (6)′雨が降った。
- (7) 私は先生に子供を叱られた。
- (7)′ 先生は私の子供を叱った。

위의 예문에서 (3), (4)는「單純受動文」이고, (5), (6), (7)은「間接受動文」이다.

「單純受動文」은 예문 (3), (4)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 문의 주어로 오는 수동문으로 森田의 第2種受動文과 같다고 할 수 있고,「間

⁴⁾ 森田良行、「受身・使役の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9』, 早稲田大学語学研究所, 1973. P.22

接受動文」은 예문 (5), (6)과 같이 수동문의 주어와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없는 수동문과, 예문 (7)과 같이 능동문에서 所有를 나타내는 名詞句가수동문의 주어로 오는 수동문을 나타내며, 이러한 수동문은 森田의 第1種受動文과 같다고 할 수 있다.

c. 意味論的 觀點에 따른 分類

松下大三郎(1928)5)은 受動을 被動이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受動文으로 취급하는 것을「實質被動」이라 칭하였다. 이것을 다시「利害被動」과「單純被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人格的被動(利害被動)」은 네 종류로 하위분류하여,「自己被動」「所有物被動」「所有物自己被動」「他物被動」으로 나누었다.

松下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利害被動」과「單純被動」을 설명하고 있다.

- (8) 子供は犬にかまれた。
- (9) 子供が犬に飛付かれた。
- (10) 亭主が女房に癪を起こされる。
- (11) 亭主が女房に死なれる。
- (12) 他人に名を成される。
- (13) 国旗は水夫によって揚げられた。
- (14) 自治制度が布かれ国会が招集された。

예문 (8)~(12)는「利害被動」이고, (13), (14)는「單純被動」이다.

「利害被動」은 주어를 하나의 人格으로 다루어 어떤 사물의 동작과 利害 關係를 맺고 있다는 뜻의 수동으로, 주어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限定

⁵⁾ 松下大三郎. 『標準日本口語法』. 勉誠社. 1977. pp.157~161

한다. 따라서「酒は人に飲まれる」라는 문장은,「酒」가 利害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상한 문장이 된다고 松下는 말하고 있다. 「單純被動」은 利害를 입는다는 특수한 의미가 없는 수동으로 주어는 非人格的인 것으로 限定한다.

또한,「利害被動」은「~=」와 같은 형식으로 客體의 개념이 확실한 경우가 많지만,「單純被動」은 客體의 개념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動作主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ョッテ」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佐久間鼎(1936)6)은 앞에서 언급한 松下의 분류에 영향을 받아, 수동문을 크게「本来の受身」와「利害の受身」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本来の受身」는 松下의「單純被動」에 해당하는 것으로, 動作者를 직면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動作者로부터 處置를 받거나 변화를 입는 자를 주어로 설정하여 사물의 經過를 진술할 경우에 사용된다.「利害の受身」는 松下의「利害被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타동사에 관계없이 자발적인 동작, 자연현상,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利害關係를 나타낼 경우에 사용된다. 佐久間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타동사를 예로 들어 이러한 유형의 수동문들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 (15) もちがねずみに(よって) かじられた。(「本来の受身」)
- (16) (わたしが)ねずみにもちをかじられた。(「利害の受動」)

「利害の受動」인 예문 (16)은「わたし」가 被害者,「ねずみ」가 動作主,「もち」가 동작의 대상이 되어 각각「ガ」「ニ」「ヲ」라는 조사를 취하고 있다. 이것을 예문 (15)의「本来の受身」로 바꿔 말해 보면,「わたし」가「わたしのもち」로 되면서 迷惑의 느낌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⁶⁾ 佐久間鼎、『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くろしお出版、1983、pp.210~213

三上章(1953)7)는,松下文法,佐久間文法을 이어받아 수동문을「まともな受身」와「はた迷惑の受身」로 분류하고 있다.

「まともな受身」는 基本文8)의 「を」,「に」格을「が」로 바꾸고, 원래의「が」를「に」로 바꾸는 것으로, 동사에 의해 恩惠나 被害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被害는 간접적인 被害가 아니라 相対로부터의 직접적인 被害를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はた迷惑の受身」는 基本文의「が」를「に」로 바꾸는 것 외에는 格의 轉換이 없고, 새롭게「が」가 첨가되는 형태로 被害를 받는다는 뜻에서「はた迷惑の受身」라고 칭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류방법을 자・타동사의 구별에도 이용하여, 두 가지 유형의 수동문 중에서 어느 한쪽의 수동문에라도 속해 있는 동사를 能動詞로, 두 가 지 수동문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해 있지 않는 동사를 所動詞로 구분 짓고 있 다. 게다가 능동사 중에서도,「まともな受身」와「はた迷惑の受身」에 모두 속하는 것을 他動詞,「はた迷惑の受身」에만 속하는 것을 自動詞로 취급하고 있다.9)

寺村秀夫(1982)10)는 松下, 佐久間, 三上의 분류를 이어받아, 일본어의 수동 문을 크게「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나누었다.

寺村는「直接受動」€、「舞台の上の登場人物が、二人かそれ以上であることが前提になっている。そのうち、その事象を起こしたものを主役とし、その相手をわき役として描くのが能動表現であり、その働きを受けるものが主役になり、彼に働きかけるものがわき役に回るのが直接受身表現である。つまり、その役の転換は、当事者の間のことだということである。」라고 하였다.

⁷⁾ 三上章, 『現代語法序説』, くろしお出版, 1979, p.105

⁸⁾ 여기에서 基本文이란 受動文의「もとになる文」의 의미이다.

a. 太郎が次郎に殴られた。→ 受動文

b. 次郎が太郎に殴った。→ 基本文

⁹⁾ 被動이 가능한 動詞를「能動詞」, 불가능한 動詞를「所動詞」로 분류하고,「まともな受身」와「はた迷惑の受身」양쪽 다 成立시킬 수 있는 것은「他動詞」,「まともな受身」을 成立시킬 수 없는 것을「自動詞」라 하였다.

¹⁰⁾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1982. p.213

이에 반해「間接受動」은、「舞台の上の登場人物、つまり当事者の間のことではなく、傍(はた)でそれを見ているもの、つまりその舞台の外の第三者が、その舞台の出来事によって何らかの影響を受ける。そういう状況を描こうとするものだといえる。間接受身は、その事象を、いわば始めは傍で見ていたものが、その事象が起ることによって影響を受ける。つまり新たな舞台で一つの役をもったものとして登場する、そういう表現である。」라고 하였다.

寺村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수동문을 설명하고 있다.

- (17) 花子は祖母に育てられた。
- (17) 祖母が花子を育てた。
- (18) 花子は五歳のとき父母に死なれた。
- (18) * 両親が花子を死んだ。

예문 (17)과 같이 主語가 述語動詞의 동작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意味論的 특징과,「XがYニ~サレル」의 수동문이「YがXヲ(ニ)~スル」라는 대응하는 능동표현을 갖는 構文論的 특징을 가진 수동을「直接受身」라고 하 였으며, (18)과 같이 主語가 받는 영향이 간접적이라는 점과, 대응하는 능동 문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 수동을「間接受身」로 칭하여 구별하였다.

益岡隆志(1987)¹¹⁾은 意味論的인 관점에서 수동문을「受影受動文」「屬性 敍述受動文」「降格受動文」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屬性敍 述受動文」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특징을 표현하는 屬性敍述文이고,「受影 受動文」「降格受動文」은 특정의 時空間에 生起・存在하는 사상을 표현하는 事象敍述文이다. 益岡는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각각의 수동문을 설명하고 있다.

- (19) 花子の家は高層ビルにかこまれている。(「属性叙述受動文」)
- (20) 私は親に叱られた。(「受影受動文」)
- (21) 答案用紙が回収された。(「降格受動文」)

예문 (19)와 같은「屬性敍述受動文」은 어떤 대상에 관해 그 屬性을 기술한 수동문이고, 예문 (20)과 같은「受影受動文」은「私」가「親に叱った」라는 독립적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降格受動文」인 예문 (21)은 動作主의 背景化가 受動化의 동기가 된 수동문으로, 즉,動作主를 主語의 위치에서 내리고, 동작의 대상을 主語로 설정하고 있다.

d. 形態와 意味論的 觀點에 따른 分類

일본어 受動文을 形態論的 관점과 意味論的 관점에 따라 분류한 학자로 대표되는 岩淵匡(1983)¹²⁾은,「受身は、一つの事物が他から動作・作用を受ける表現であるが、形態や意味からいくつかに分けている。」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形態論的 觀點에서 수동문의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前者를「他動詞の受身」,後者를「自動詞の受身」라고 칭하였고,意味論的 觀點에서는 수동문의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生物인가 아니면無生物인가에 따라 前者를「有情物の受身」,後者를「非情物の受身」로 분류하였다.

또한,「他動詞の受身」를「直接的受身」와「間接的受身」의 두 가지 유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直接的受身」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어로 설정된 수동문이고,「間接的受身」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닌, 새로운 참가자가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어로 설정된 수동문을 말한다.

¹²⁾ 岩淵匡,「受身・可能・自発・使役・尊敬の助動詞」『品詞別日本文法講座8』明治書院, 1972, pp.151~153

岩淵匡의 분류를 森田의 분류형식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他動詞受動 → 森田의 ②~④, ⑥~⑧에 대응한다.
 - 1. 直接的受動 → 森田의 ⑥~⑩에 대응한다.
 - (1) 有情の受身
 - (2) 非情の受身
 - 2. 間接的受動 → 森田의 ②~④에 대응한다.
- B. 自動詞受動 → 森田의 ①과 ⑤에 대응한다.
 - 1. 間接的受動 → "
 - (1) 有情の受身
 - (2) 非情の受身

e. 構文과 意味論的 觀點에 따른 分類

久野暲(1983)13)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일본어 수동문을 분류하였다.

- (22) この子は皆にかわいがられている。
- (22)′ 皆がこの子をかわいがる。
- (23) 田中は、山田先生に認められた。
- (23)′山田先生が田中を認めた。
- (24) 山田は、花子に、アパートに来られた。
- (24)′花子がアパートに来る。
- (25) 田中老人は、娘に、その青年と結婚された。

¹³⁾ 久野暲、『新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1983, pp.192~193

(25) 娘はその青年と結婚した。

예문 (22), (23)의 수동문과 (24), (25)의 수동문 사이에서는, 被害・迷惑라는 의미의 內包유무에 따른 意味的인 차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構文的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22), (23)에서는 전체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만, (25), (26)에는 이러한 능동문이 없고, 주어를 뺀 나머지 부분에대응하는 능동문만이 존재한다는 假說을 내세워, (22), (23)은 意味上「中立受動文」, 構文法上「直接受動文」으로, (24), (25)는 意味上「被害受動文」, 構文法上「間接受動文」으로 설정하였다.

f. 構文과 意味의 折衷的인 觀點에서의 分類

鈴木重幸(1972)14)는 능동문의 어떠한 格이 수동문의 が格(主語)으로 轉換되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直接受身」「相手の受身」「持ち主の受動」「第三者の受身」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直接受身」와「相手の受身」는 典型的인 直接受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直接受身」는 예문 (26)과 같이 능동문의 ヲ格이 수동문의 ガ格으로 전환되었고,「相手の受身」는 예문 (27)과 같이 능동문의 ニ格이수동문의 ガ格으로 전환되었다.

- (26) 二郎が一郎になぐられた。
- (26)′一郎が二郎をなぐった。
- (27) 花子は太郎に算数をおしえられた。
- (27)、太郎は花子に算数をおしえた。

¹⁴⁾ 鈴木重幸、『日本語文法・形態論』、 麦書房、1972、pp.279~284

그리고「持ち主の受身」과「第三者の受身」는 특히 構文論的인 면에서, 典型的인「間接受身」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持ち主の受身」는, 예문 (28)과 같이 능동문의 所有者인 ノ格이 ガ格으로 전환된 것이며,「第三者の受身」는, (29)와 같이 능동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第三者가 ガ格으로 나타나는 수동이라고 하였다.

- (28) 太郎はスリにさいふをすられた。
- (28)′ スリが太郎のさいふをすった。
- (29) (ぼくは) 雨に降られた。
- (29)′雨が降った。

仁田義雄(1992)¹⁵⁾는, 수동의 종류를「まともの受身(直接受動)」「持ち主の受身(所有者受動)」「第三者の受身(間接受動)」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まともの受身」는, 構文的으로 능동문 안에 존재하고 있는 非が格의 共演成分을 が格으로 전환하고, が格의 共演成分을 が格으로부터 떼어놓은 수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意味的으로는 능동문과 동일한 事象을 나타내고 있으며, が格은 동사의 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第三者の受身」는, 능동문의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나 상태의 성립에 참여하지 않는 第三者를 が格으로 설정한 수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수동문은 構文的으로 능동문의 동사가 필요로 하는 共演成分에 비해, 受動文에서는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한 개 늘어 새롭게 도입된 構成要素를 수동문의 が格으로 설정하고, 事象을 나타내는 부분을 다른 構成要素로 세운「埋め込み構造」라는 複層構造를 이루고 있다. 意味的으로는, 능동문에서 일어나는 事象을 수동문의 全體事象 中의 構成要素로서 파악하여 複合的인 事象으을 나타낸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第三者の受身」의 が格은, 능동문의

¹⁵⁾ 仁田義雄、「持ち主の受身をめぐって」、『藤森ことば論集』、精文堂、p.354

동사가 나타내는 작용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中間的인 존재로「持ち主の受身」를 설정하고 있다.

丁意祥(2000)¹⁶⁾은, 構文的인 조건과 意味的인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어 수동을 크게「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나누고,「所有者受動」은 수동의 독립적인 하위유형으로 설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直接受動」으로, 또어떤 것은「間接受動」으로 구분하고 있다.

「直接受動」은 構文的인 면에서, 능동문과 수동문의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기본적으로 增減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意味的으로는 수동문의 が格 名詞句가 동사에 의한 동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이나 작용을 받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한편,「間接受動」은 構文的으로는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고, 基本文의 동사가 요구하는 必須項의 수에 비해 수동문의 동사가 필요로 하는 項의 수가 한 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意味的으로는 基本文이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 수동문의 が格 名詞句, 즉 第三者는 그 사태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상으로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분류를 크게 6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 사이에서 類似點과 相異点을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즉,「第1種受動・間接・被害・利害・有情」과「第2種受動・直接・中立・單純・非情」은 각각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나,「直接・間接」이라는 용어가 構文論的 分類(久野1983)에서도,意味論的 分類(寺村1983)에서도 사용되어 같은 용어가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게 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에 따른 構文論的인 면과 주어가 述語動詞의 동작이나 작용을 直接的으로 받는지 혹은 間接的으로 받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意味論 的인 면을 적절하게 折衷하고, 또한 동작의 主體와 對象과의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仁田義雄(1992)의 분류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수동의 하위유형을「直接受動」「間接受動」「所有者受動」으로 설정하여 그 체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受動의 下位類型의 種類와 意味・用法

일본어 수동문을 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二分類法으로 나누는 형식은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한 분류는 本稿에서의 분류와 外廷的・內包的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수동문의 하위유형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의 定說的인 사상을 인식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어 수동은, 각각의 하위유형이 서로 어느 정도의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략 直接受動, 間接受動, 所有者受動이라는 세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수동의 분류에 있어 意味的인 면과 構文的인 면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仁田義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위유형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2. 1 直接受動

「直接受動」이란, 대응하는 능동문 안에 존재하고 있는 非ガ格의 共演成分17)(名詞句)을 ガ格으로 전환하고, 이어서 ガ格 名詞句를 ガ格으로부터 떼어놓은 수동이라고 概略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¹⁷⁾ 여기에서 共演成分이란 格의 名詞句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30)에서 が格의 共演成分 은 洋子가 된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名詞句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 (30) 洋子が広志に殴られた。
- (30) 広志が洋子を殴った。
- (31) 車が海から \emptyset 引き上げられた。
- (31)′警察が海から車を引き上げた。

의 문장에서 예문 (30), (31)이「直接受動」이다. 이러한「直接受動」은 構文 및 意味的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構文的인 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直接受動」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을 구성하는 必須構成要素18) 사이에서 格의 전환이 일어나고 특히, が格(主格)의 전환은 義務的이라고 할 수 있다. (30), (30)'의 예문을 보면, 「殴った」와 같이 能動形의 述語動詞를 가진 능동문에서는 작용을 일으킨 대상의「動作主」는 が格으로,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對象」은 ヲ格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殴られた」라는 受動形의 述語動詞를 가진 受動文에서는, 「對象」이 が格으로 표시되고, 「動作主」가 二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必須構成要素 사이에서는 각각의 格이 서로 대응을 이루며 轉換하기 때문에 能動文과 受動文의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기본적으로 증감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意味的인 면에서 볼 때「直接受動」은, 능동문과 동일한 必須構成要素들이 조합을 이루며 구성된 構文的인 특성에 영향을 받아, 양쪽 모두 동일한 상황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直接受動」에서 が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要素(主語)는, 능동문에서 상황이나 사태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던 必須項의 한 부분이 전환된 것으로서,「直接受動」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앞의 예문 (30)「洋子が広志に殴られた。」와 (31)「車が海から引き上げられた。」에서, 실제로「直

¹⁸⁾ 必須構成要素란 必須項 내지는 必須論項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으며, 本稿에서는 必須構成要素 또는 必須項을 交替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接受動」에서 が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洋子」와「車」는, [広志の殴る] [(警察の)引き上げる] 라는 작용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2. 2 間接受動

「間接受動」은「直接受動」과는 달리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 대신 대응을 이루고 있는 基本文에서 事態의 성립에 참여하는 必須構成要素가 아닌, 새롭게 도입된 第三者를 ガ語로 세운 수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基本文이 요구하는 必須構成要素의 수에 비해,「間接受動」에서 필요로 하는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증가한다는 것이「間接受動」의 構文的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 (32) 僕は雨に降られた。
- (32)′雨が降った。
- (33) 広志は洋子に結婚された
- (33)´ 洋子が(Xと)結婚した。
- (34) 私は警官に息子を殴られた。
- (34)′警官が息子を殴った。
- (35) 岡田は田中に先に洋子に贈り物を贈られた。
- (35)′田中が先に洋子に贈り物を贈った。

에서 예문 (32), (33), (34), (35)가「間接受動」이다. 이들은 모두 (32), (33), (34), (35), (34), (35), (34), (35), (35), (35), (34), (35), (35), (35), (36),

반한 派生的인 受動動詞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間接受動」은 構文 및 意 味的으로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지고 있다.

먼저, 構文的인 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基本文의 동사인 單純動詞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예문 (32)', (33)', (34)', (35)'와,「(r)areru」라는 接詞가 첨가된 派生動詞에 해당하는 受動動詞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예문 (32), (33), (34), (35)를 비교해 보면,「間接受動」을 형성하는 受動動詞는 基本文의 單純動詞에 비해 必須的인 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늘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間接受動」을 형성하고 있는 述語의 원래 동사19인 單純動詞「降る」「結婚する」「殴る」「贈る」가 각각 が格 名詞句만을 必須構成要素로 취하는 一項述語(one place predicate), が格과 ト格 名詞句를 必須構成要素로 취하는 二項述語, が格과 ヲ格과 ニ格 名詞句를 취하는 三項述語인 것에 비해,「間接受動」을 형성하고 있는 受動動詞「降られる」「結婚される」「殴られる」「贈られる」는, 각각 二項述語, 三項述語, 三項述語, 四項述語와 같이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한 개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基本文에 비해 必須構成要素가 하나 증가하였다는 점은「間接受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受動文의 受動動詞가 基本文의 單純動詞에 비해 必須構成要素項의 수가 하나 늘어나게 되었지만, 새롭게 첨가된 요소가 원래 必須構成要素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작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間接受動」에서도 が格의 전환이 의무적이라는 점은「直接受動」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內容은 약간 다르다.「直接受動」의 경우는, 대응하는 능동문의 必須項의 名詞句가 수동문의 が格으로 오게 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전환이 이뤄지지만,「間接受動」의 경우는, 基本文의 必須項의 名詞句가 수동문의 が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基本文이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성립에는 전혀 관계 되어 있지 않은 項, 즉 基本文에서는 전혀 필요로 하지않은 項(第三者)이 새롭게 が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¹⁹⁾ 여기에서 원래 동사는「もとになっている動詞」의 의미로 基本文의 술어동사를 뜻한다.

위와 같은 특징이 다음과 같은「間接受動」의 構文的인 특성을 만들어 내었다.「間接受動」은 새롭게 도입된 第三者를 が格으로 세우고, 기본문의 동사에 의해 형성된 事態를「埋め込み成分」으로 취하는「埋め込み構造」를 이루고 있다. 즉, 基本文을 수동문 안의 一要所로 취급한 複文的構造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間接受動」의 構文的인 특징은, 以下에서 서술할 意味的 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間接受動」과 基本文은 각각 나타내고 있는 事態의 표현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基本文이「間接受動」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내는 事態의 수가 한 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34)'의「警官が息子を殴った。」라는 基本文이, 대략 [警官が息子を殴る。] 라는單一한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34)의「私は警官に息子を殴られた。」라는「間接受動」은 [私が(警官が息子を殴る) ことを被る] 로도 표기될 수 있는 複合事象을 나타낸다. 複合事象이란 並列的이고 接續的인 것이 아니라,基本文이 나타내고 있는 事態를 수동문 안의 構成要素로 포함시킨 複層的인 형식이다. 이에 따라 基本文에 비해「間接受動」가 나타내는 事態의 수가 한 개 늘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構文的인 특징은「間接受動」의 が格에 다음과 같은 意味的인형식을 부여하게 된다. 基本文의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事態는, 수동문의 事態에 포함된 構成要素로서 전체적인 事態의 형성에 관계하고 있지만, 수동문의 が格에 위치한 第三者는 그 事態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즉,「間接受動」의 が格은 基本文을 형성하고 있는 동사의 작용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2. 3 所有者受動

「所有者受動」이란, 基本文의 ヲ格이나 ニ格 名詞句의 所有者를 나타내는 명사를 ガ格으로 세우고. ガ格 名詞句를 ガ格으로부터 떼어놓은 수동이다. 예

를 들면,

- (36) 憲二は頭を広志に殴られた。
- (36)、広志が憲の頭を殴った。
- (37) 僕は電車の中で隣りの客に肩に寄り掛かられた。
- (37)、隣りの客が僕の肩に寄り掛かった。

에서 예문 (36), (37)이「所有者受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受動動詞로 형성된 예문 (36), (37)에서는, 基本文인 (36)'의 ヲ格 名詞句「頭」와, (37)'의 ニ格 名詞句「肩」의 所有主體가 되는「憲二」와 「僕」가 が格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所有者受動」은, 앞에서 정리한 「直接受動」이나「間接受動」에 비해 構文的・意味的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먼저, 構文的인 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所有者受動」은 基本文에 비해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한 개 늘어나 있다. 실제로 基本文 (36)', (37)'의「殴る」,「寄り掛かる」는 각각 が格과 ヲ格成分, が格과 ニ格成分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는 二項述語지만,「所有者受動」의 (36), (37)에서는 [が格、ヲ格、ニ格], [が格、ニ格、ニ格]와 같이 필요로 하는 構成要素의수가 각각 하나씩 증가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所有者受動」의 경우, 새롭게등장한 要素가 원래 必須構成要素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의 작용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所有者受動」이「間接受動」과는 다르게 單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構文上의 특성이「所有者受動」의 다음과 같은 意味的인 특성을 규정하게 되었다.「所有者受動」이 單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부터,「所有者受動」의 が格이 基本文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所有者受動」은 다음과 같은 意味的 含意關係가 성립하게 된다. [憲二が頭を広志に殴られた] 는 [憲二が広志に殴られた] 라는 것을 의미하고, [僕が客に肩に寄り掛かられた] 는 [僕が客に寄り掛かられた] 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憲二が頭を広志に殴られた] 라는 문장이 [憲二が広志に殴られた]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에 따라, (36)과 같은「所有者受動」은 결국,「広志が憲二殴った。」라는 基本文에서 나타내고 있는 事態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所有者受動」에 있어서 이러한 含意關係가 생겨난 것은 所有者인「憲二」와 그 所有物에 해당하는「頭」가 서로 非分離的인 所有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이「所有者受動」과「間接受動」과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憲二は頭を広志に殴られた。」라는「所有者受動」은 [憲二が広志に殴られた]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憲二は弟を広志に殴られた。」와 같은「間接受動」은 [憲二が広志に殴られた]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일본어의 受動에 대한 분류와 그 종류에 따른 의미·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第 3章에서는 本稿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所有者受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선 先行研究를 분석하여「所有者受動」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下位類型을 분류하여「所有者受動」의 位置設定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3章 所有者受動의 體系 및 位置設定

앞서 연구한 第 2章에서는 일본어 受動文의 분류방법에 대한 각각의 先行 研究를 알아보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構文的인 요소와 意味的인 요소를 바탕으로 수동문의 하위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이에 따라 일본어 수동문에 대한 全般的인 體系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章에서는 受動文의 하위유형 중 본고의 核心的 고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所有者受動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도록 하겠다. 所有者受動의 전체적인 체계와 위치설정을 논함에 앞서, 우선 종래의 연구에서는 所有者受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3. 1 所有者受動에 關한 先行研究 및 問題提起

松下大三郎(1928)은「所有者受動」을「所有物被動」이라고 命名하고,「他物の動作を自己の所有物へ受ける受動」이라고 규정하며, 예문 (38), (39)와 같은 수동문을 제시하였다.

- (38) 人、盗賊に物を偸まる。
- (39) 小児、蜂に顔を刺さる。

三上章(1953)는, 受動을「まともの受身」와「はた迷惑の受身」로 분류하였지만, 索引에 수동문의 주어를 分身, 部分, 所有物등으로 분리하여 나타낸「分けての受身」를 내세워 수동문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40) 己が甲に作品をほめられた。

鈴木重幸(1972)는,「所有者受動」을「もとになる動きの持ち主を主語としてあらわした受身」라고 규정하였다. 基本文이 受動文으로 전환할 때 基本文의 對象語 즉,被所有物20)은 受動文에 그대로 남게 되며,「所有者受動」에서 ヲ格으로 표시되는 被所有物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 (41) 太郎がスリにさいふをすられた。
- (41)′スリが(太郎の)さいふをすった。
- (42) 花子が先生に絵をほめられた。
- (42) 先生が(花子の)絵をほめた。
- (43) 次郎が友達に背中を叩かれた。
- (43) 友達が(次郎の)背中を叩いた。

堀口和吉(1982)는,「所有者受動」을「関係事物の受身」라고 하였으며, 構文的인 면에서 수동문의 주어는 대응하는 능동문에서 連用格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와 관계된 사물의 名詞句에 連體格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意味的인 면에서는 수동문의 주어와 관계되어 있는 사물이「他の作用」에도 관여하고 있어, 주어가「他の作用」에 영향을 받는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間接受動」이라 여기는 예문 (44), (45)와 같은 수동문까지「関係事物の受身」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 (44) 花子は太郎に隣に座られた。
- (45) 花子は太郎に傍から逃げられた。

²⁰⁾ 여기서 말하는 對象語, 즉 被所有物이란 高橋(1975)의 분류에 의하면, 肉體的인 部分이나 착용하고 있는 의복등의 部分, 동작・성질・상태에 관계하는 側面, 所有者와 所有關係에 있는 물건이나. 所有者와 관계하고 있는 人物 등을 말한다.

森山卓郎(1988)는,「所有者受動」을「間接受動」의 한 종류로 취급하여「所有の受身」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별한 유형으로「部分の受身」을 설정하였다. 「所有の受身」는 基本文에서 소유의 관계에 있던 成分이 주어로 오게 되고, 그 주어는 동작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前提하고 있다. 예를 들어,

- (46) 私は泥棒にかばんをとられた。
- (46)、泥棒が私のかばんをとった。

예문 (46)에서는 소유의 관계에 있는「私」가 주어로 설정되어 있지만, 「(泥棒が) かばんをとる」라는 상황 자체는「私」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格의 관계에서 생각하면「所有の受身」는「間接受動」에 가깝게 된다. 하지만 수동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事態는「私はかばんをとられた」라는 것으로,「私はとられた」로 바꿔 말한다면 충분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단, 이 중에서 被所有物이 主語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非分離的인 소유관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47) 私は頭を殴られた。

(47)의「私は頭を殴られた」라는 문장은「私は殴られた」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所有主와 所有物의 관계라기보다는 全體와 部分이라는 관계가 되어「部分の受身」로 포함된다. 이러한「部分の受身」는 迷惑(被害)의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子供は母に頭をなでられた。」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工藤眞由美(1990)는,「所有者受動」을「間接受動」보다「直接受動」에 좀 더 가까운 수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根據로「所有者受動」의 주어를 차지

하고 있는 參加者가 構文的으로 規定語(/格)라고는 해도 이미 능동문에서 나타나있던 것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현대 일본어의 能動과 受動의 대립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어와 목적어라는 構文的 要素뿐만 아니라 規定語라는 要素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所有者受動」이 능동과 수동의 대립관계 사이에 놓여 두 사 태를 複合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意味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문 (48), (49)에서 볼 수 있듯이「間接受動」이 利害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과는 달리「所有者受動」은 행위 자체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迷惑性에 관해서는 중립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주어는 〈人〉로 한정하지 않고, 〈もの〉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48)被害者は頭をめちゃめちゃに潰されていた。 (所有者受動)
- (49) 警察は被害者の頭をめちゃめちゃに潰されていたため犯人をわりだせなかった。 (間接受動)

仁田義雄(1992)는,「所有者受動」을 基本文의 ヲ格이나 ニ格 共演成分의 所有者를 나타내는 명사가 が格으로 오고, 이어서 が格의 共演成分을 が格으로부터 떨어뜨려놓은 수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仁田은 構文的으로「所有者受動」은 基本文에 비해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늘어, 새롭게 도입된 構成要素가 더해진 全必須構成要素가 동일한 레벨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어떤 한 동작을 형성하는 單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또, 意味的으로는 基本文이 나타내고 있는 事象과 엄밀한 類同性을 가진 事象을 나타내고 있으며,「所有者受動」의 が格은 基本文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所有者와 所有·附屬物 사이에 分離不可能한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같은 表面構造를 가진 예문 (50), (51)과 같은 경우는 含意關係의 성립여부를 기준으로, 의미적인 含意關係가 성립하는 예문 (50)은「所有者受動」으로, 성

립하지 않는 예문 (51)은「間接受動」으로 취급하고 있다.

- (50) 憲二が頭を広志に殴られた。 (所有者受動) = 憲二が広志に殴られた。
- (51) 広志は敵に指の骨を折られた。 (間接受動)

≠ 広志は敵に折られた。

山内博之(1997)²¹⁾는,「所有者受動」을 ヲ格명사를 수식하는 屬格이 昇格하여 만들어진 수동으로,「屬格昇格型受動」이라고 하였으며, 세부적으로「部分の受身」,「親族の受身」,「所有物の受身」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間接受動」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문 (52)도屬格昇格型受動(所有者受動)로 파악하고 있다.

- (52) 太郎は母に死なれた。
- (52)′太郎の母が死んだ。

「部分の受身」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 (53) 太郎は花子にシャツの袖をつかまれた。
- (54) 花子は太郎にスカートをひっぱられた。
- (55) 太郎は恋人に背広をほめられた。
- (56) 花子はクラスメートに弁当箱を笑われた。

「所有物の受身」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 (57) 太郎は暴漢に指を折られた。
- (58) 花子は太郎に髪を切られた。
- (59) お婆さんは孫に肩を揉まれた。

또 山内는,「部分の受身」와「親族の受身」는 單層的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所有物の受身」는 複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서술하였다.22)

丁義祥(1999)은, 일본어 수동을 크게「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나눠, 「所有者受動」을 독립적인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構文的, 意味的인 차이에 입각하여「直接受動」과「間接受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XガY=Zヲ~ラレル」와 같은 構文形式을 가지는 유형 중에서, 構文的으로 대응하는 능동문에 비해 必須項의 증감이 없고, 意味的으로는 X와 Z라는 두 개의 명사구가 分離不可能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直接受動」이라 부르고, 構文的으로 대응하는 基本文에 비해 必須項의수가 하나 늘어나고, 意味的으로 X와 Z가 分離可能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間接受動」으로 인식하여,「所有者受動」을「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이라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 (60) 田中ハ先生ニ頭ヲ殴られた。 (直接受動)
- (60) 先生が田中の頭ヲ殴った。
- (61) 田中ハ先生ニ子供ヲ殴られた。(間接受動)

²²⁾ 山内(1997)는,「部分の受身」에서는 が格名詞가,「親族の受身」에서는 ヲ格名詞가 동사가 나타 내는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單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 両者는 斜格昇格受身(直接受動)에 보다 가까운 類型이라고 하였고,「所有物の受身」는「XがYにZを~られる」를「Xが「YがZを~する」ことを破る」로도 표기할 수 있는 複層的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여, 新規主格型受身(間接受動)에 보다 가까운 類型으로 서술하고 있다.

(61)′ 先生が田中の子供ヲ殴った。

(60)과 (61)은, 表面的으로 보면 兩者 모두「所有者受動文」이라고 할 수 있지만, 丁(1999)은 이들을 서로 다른 유형의 수동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것은 대응관계에 있는 각각의 예문 (60)'과 (61)'의 /格이 나타내는 文法的인 작용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즉, X와 Z가 分離不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진 (60)'과 같은 문장은 /格을 그 문장의 必須成分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X와 Z가 分離可能한 의미관계를 가진 (61)'과 같은 문장에서는 /格을 그 문장의 必須成分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前者는 대응하는 수동문에 비해 必須項의 증감이 없는 반면, 後者는 대응하는 수동문에 비해 必須項의 수가하나 줄어들었다는 構文的인 특성의 차이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동사의 語彙的인 의미의 차이에 따라 두 유형의 수동으로 분류하였다.

- (62) 花子は犯人にスカートをひっぱられた。
- (63) 花子は犯人にスカートを切られた。

예문(62), (63)을 보면, (62)의 동사가 對象非變化動詞인 것에 반해, (63)의 동사는 對象變化動詞라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62)와 같은「所有者受 動」은, 非典型的인「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인식하고, (63)과 같은 「所有者受動」은, 非典型的인「間接受動」에 가까운 受動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처럼 일본어의「所有者受動」은 학자에 따라 그 설정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로「YガX/Zヲ~スル」의 문장에서 所有者 X를 주어로 내세운「XガYニZヲ~サレル」라는 형태를 들 수 있다. 先行研究를 통해 알아본「所有者受動」의 설정기준에 관한 연구는「所有者受動」이

가지고 있는 文法的인 意義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本稿에서는「所有者受動」의 하위유형 체계를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XガYニZヲ~サレル」라는 表面構造를 가진 모든 유형을 넓은 개념으로의「所有者受動」으로 설정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수동이「直接受動」인지 아니면「間接受動」인지에 대한 종래의 非生産的인 연구에서 탈출하여, 이제까지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X名詞句와 Z名詞句가 어떠한 語彙的 意味關係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려고 한다.

3.2 所有者受動의 下位類型의 體系

本稿에서의「所有者受動」이란,「XガY=Zヲ~ラレル(所有者受動文)←YガX ノZヲ~スル(基本文)」라는 表面構造를 가진 수동문을 말하며, 이러한 유형의 「所有者受動」²³⁾은, 構文的으로 基本文의 ノ格 構成要素 X(所有者)가 수동 문의 ガ格으로 전환되고, 基本文의 ヲ格 構成要素 Z는 수동문에서 그대로 ヲ 格으로 남아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하나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意味的으로는 X와 Z名詞句가 서로 非分離的인지 아니면 分離的인지라는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다시 X와 Z와의 소유관계에서 나타나는 意味的인 차이에 따라 部分, 側面, 所有物, 關係者 등으로 세분할수 있다. 즉, Z가 사람(動物)의 신체부분인 경우와 사물과 그 사물의 분리 불가능한 어떤 부분을 나타낼 경우는 非分離的인「部分」으로, Z가 사람(動物) 또는 사물의 動作이나 性質, 狀態, 感情, 狀況 등을 나타내는 경우는 非分離的인「側面」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Z가 X의 所有物인 경우는 分離的인「所有物」로, Z가 肉親이나 親族인 경우는 分離的인「関係者」로 구분하였다.

²³⁾ Z格은 一般的으로 ヲ格을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 工藤(1990)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格이 오는 경우도 있다.

花子が太郎に頭から水をかけられる。(←太郎が花子の頭から水をかける。)

여기에서 Z가 非分離的인「部分」과「側面」인 경우의「所有者受動」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주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분류하였으며, Z가 分離的인「所有物」과「關係者」인 경우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Z이고, 수동문의 주어 X는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있기때문에「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丁(1999)은 X名詞句와 Z名詞句가 非分離的 혹은 分離的인 관계라는 기준만으로는「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인지, 아니면「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例文도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24)

- (64) 花子は犯人にスカートをひっぱられた。
- (64)′犯人が花子のスカートをひっぱった。
- (65) 花子は犯人にスカートを切られた。
- (65) 犯人が花子のスカートを切った。

예문 (64)와 (65)에서 X(花子)와 Z(スカート)는 分離的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Z가입고 있는 의복이나 신고 있는 신발 등과 같은 경우의「所有者受動」은, X와 Z의 관계가 分離的이라는 사실만으로「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이라고 할수 없다.25)

²⁴⁾ 丁(1999)은, 예문 (64), (65)의 動詞는, 서로 語彙的인 意味의 차이가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64)의 動詞가 對象非變化動詞인데 반해, (65)의 동사는 對象變化動詞라는 차이점으로부터, 둘 다 X와 Z가 分離的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64)과 같은「所有者受動」의 主語는 動詞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 및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설정하고, (65)의 경우는 動詞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 및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Z이고, 수동문의 主語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접수동에 가까운 수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²⁵⁾ 丁(1999)「「持ち主の受身」と"목적어 있는 피동"」『日語日文學研究 34号』,韓國日語日文

以下에서는, 上記한 내용과 같은「所有者受動」즉,「XガY=Zヲ~ラレル←Y ガXノZヲ~スル」라는 表面構造를 가진 수동을, X와 Z 名詞句의 관계가 分離 的인지 아니면 非分離的인지의 기준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살펴 볼 수 있는 特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2. 1 X와 Z가 非分離的인 所有關係를 가진 類型

X와 Z가 非分離的인 所有關係를 가진 유형은 그 속성의 차이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Z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부분을 나타내거나, 사물에 있어서 분리 불가능한 部分을 나타내는 명사일 때는 非分離的인「部分」이라 할 수 있으며, Z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의 動作이나 狀態, 狀況, 性質, 感情등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는 非分離的인「側面」을 나타내다고 할 수 있다.

3. 2. 1. 1 Z가「部分」을 나타내는 類型

- (66) <u>ぼくは、打たれた頬を</u>押さえたまま呆然といていた。<u>山野舞子</u>は、怒りで震える手を、 髪の乱れを直した。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山野舞子がぼくの頬を打った。)
- (67) <u>ぼくに肩を抱かれた</u>まま、<u>澪は</u>その身を震わせていた。 <いま、会いにゆきます>(← ぼくが澪の肩を抱いた。)
- (68) <u>若い衆に脇や腰回りを調べられ、伊良部</u>の上着の内ポケットから注射器が出てきた。 <空中ブランコ>(← 若い衆が伊良部の脇や腰回りをしらべる。)

學會

- (69) 「信号が変わった。今だよ」<u>伊良部に背中を押されて</u>ぶら下がった。〈空中ブランコ〉(← 伊良部が(私の)背中を押す。)
- (70) 温かな蝋にすっぽりと全身を包まれたように、浅井エリは深く念入りな睡眠状態の中にある。 <アフダーダーク>(← 温かな蝋が浅井エリの全身を包む。)
- (71) 背広に口をふさがれ、ルートの声はくぐもってとても博士の耳まで届かなかった。〈博士の愛した数式〉(← 背広がルートの口をふさぐ。)
- (72) 部屋の隅では、<u>洋輔が看護婦に</u>つかまり、無理矢理<u>腕をまくられ</u>ていた。〈空中ブランコ〉(← 看護婦が洋輔の腕をまくる。)
- (73) そこには<u>風雨に字を消され</u>た数数の<u>墓石が</u>ある。 <ブンとフン>(← 風雨が墓石の字を消す。)
- (74) コントロール・タワーを狂人に占領された飛行場。 <砂の女>(← 狂人が飛行場のコントロール・タワーを占領する。)

예문 (66)~(72)의「所有者受動」에서 X와 Z 名詞句는 사람 또는 동물과 그 신체부분이라는 非分離的인 소유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예문 (66)의「ば 〈」와「類」, (67)의「澪」와「肩」, (68)의「伊良部」와「脇や腰回り」, (69)의「私」와「背中」, (70)의「浅井エリ」와「全身」, (71)의「ルート」와 「口」, (72)의「洋輔」와「腕」에서 볼 수 있는 소유관계는 각각 사람(動物) 과 그 신체부분이라는 非分離的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 (73), (74)와 같은「所有者受動」은 X와 Z 名詞句가 사물과 그 사물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어떠한 部分을 나타내고 있는 非分離的인 소유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73)의「墓石」와「字」, (74)의「飛行場」와「コントロール・タワー」는, 사물과 그 사물의 非分離的인 部分이라는 소유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Z가 X에 있어서 非分離的인「部分」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어가 그 동사에 의해 나타난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2. 1. 2 Z가「側面」을 나타내는 類型

- (75) しかし、<u>由利が外の男に目を奪われて</u>いるのはおもしろくなかった。 <東京タワー>
 - (← 外の男が由利の目を奪う。)
- (76) 葬儀の日、<u>秋葉とパーティーの仲間は樹の親族たちから参列を拒否され</u>た。あの時は誰もが感情的になっていた。 <ラヴレター>(← 樹の親族たちが秋葉とパーティーの仲間の参列を拒否した。)
- (77) しかしこういう映画ってできればビデオじゃなく、映画館の椅子に座って、親密な暗闇の中で、まわりを音楽に取りまかれて見たいものなんですね。 <村上ラヂオ>(← 音楽が(私)のまわりを取りまく。)
- (78) <u>誰にも知られたくない闇の部分を</u>、のぞかれてしまった。 <空中ブランコ> (← 誰かが(私)の闇の部分を知る。)
- (79) 直貴としては親切心から注意したにすぎないのだが、町谷としてはプライドを傷つけら

れた思い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手紙>(← 直貴が町谷のプライドを傷つける。)

- (80) その恍惚を秀美のような子供によって侵されるのはたまらなかった。秀美が奥村に、何をしたというのでもない。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秀美が(私)の恍惚を侵する。)
- (81) 彼は唇を噛んだ。思い当たらないのだった。と、いうより、彼は、誰からも気持を乱されたくないあまりに、外側からの刺激を拒み続けた少年時代を送ったのだった。
 ⟨ばくは勉強ができない⟩
 (← 誰かが彼の気持を乱す。)
- (82) 安代は二年も経った今でも、息子のことで涙を流せる<u>博子に心を動かされ</u>た。「でもあの子も幸せだわ。博子さんにやきもちまで焼かれて」「そんなこと言うとまた泣いちゃいますよ」。 <ラヴレター>(← 博子が安代の心を動かす。)
- (83) <u>日本は回りをアメリカ軍艦に囲まれている</u>。 <れくい> (← アメリカ軍艦が日本の回りを囲む。)

예문 (75)~(83)에서 ヲ格 名詞句 Z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의 動作, 性質, 感情, 狀態, 狀況 등을 나타내는 非分離的인「側面」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문 (75)의「由利」와「目」²⁶⁾, (76)의「秋葉とパーティーの仲 間」와「参列」, (77)의「話者(私)」와「まわり」, (78)의「話者(私)」와「闇 の部分」, (79)의「町谷」와「プライド」는, 사람과 그에 따른 動作, 性質, 狀

^{26) (75)}의「目」는,身體部分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身體의 어떤 한 部分」 이라는 사물의 개념보다는「視線(眺めている状態)」이라는 抽象的인 概念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側面으로 다루고 있다.

態 등과 같은 側面的인 소유관계를 지니고 있고, (80)의「話者(私)」와「恍惚」, (81)의「彼」와「気持」, (82)의「安代」와「心」는, 사람과 그 感情的側面이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83)의「日本」과「回り」는, 사물과 그 사물의 狀況이라는 소유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Z가 X에 있어서 非分離的인「側面」을 나타내는 경우는, 주어가 그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2. 2 X와 Z가 分離的인 所有關係를 가진 類型

X와 Z가 分離的인 所有關係를 지닌 유형은 그 속성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Z가 X의 所有物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는 分離的인「所有物」로, Z가 肉親이나 親族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는 分離的인「關係者」로 구분된다.

3. 2. 2. 1 Z가「所有物」을 나타내는 類型

(84) 十年ほど前に線路をひとまたぎするバイパスができて以来、駅の向こう側の<u>大型ショッ</u> <u>ピングセンターに客を奪われて</u>、²⁷⁾ <u>商店街は</u>さびれる一方なのだという。 <その日のまえに>

(← 大型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が商店街の客を奪う。)

²⁷⁾ 丁(1999)은,「「奪う」という動詞は、[が、から、を] という格を必要とする三項動詞としても、 [が、を] の二つの格を必要とする二項動詞としてもとらえられるも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XとZ が分離不可能な意味関係を持つ次のような例の場合、二項動詞の格体制を取るものであり、三項動詞としてとらえるには無理がある」라고 서술하고 있다.

僕は彼女にお金を奪われた。

僕は彼女に心を奪われた。

[→]彼女が僕からお金を奪った。

^{→??}彼女が僕から心を奪った。

[→]彼女が僕のお金を奪った。

[→]彼女が僕の心を奪った。

따라서 本稿에서「奪う, 取る」와 같은 동사는, X와 Z가 分離不可能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適 用될 수 있는 格體制, 즉 二項動詞로써 다루도록 하겠다.

(85) ある日、仕事へ向かうバスの停留所で、<u>見知らぬ女にお金を取られた</u>。〈博士の愛した数式〉(← 見知らぬ女が(私)のお金を取った。)

(86) 太った<u>美佐江</u>が編み目が横に広がり過ぎるのだが、赤青黄緑の色合いが実にお顔映りを良くしますねえ、と<u>パンチパーマの店主に褒められた自慢の服</u>だった。 〈博士の愛した数式〉

(← パンチパーマの店主が美佐江の服を褒める。)

 (87) もしかしたら少年が自分だけの秘密をどこかへ隠しておくのと同じように、博士もこれを 他人に見られるのが嫌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勝手に思い込んでいた。
 〈博士の愛した数式〉
 (← 他人が博士のこれ(野球カード)を見る。)

(88) 洗濯物だらけの窓を見えた。あの向うに、一番大切な<u>箱を荒らされ、盗まれ、その上</u> 蹴られた男の子がいる。 <蹴りたい背中>(← (私)が男の子の箱を荒らして、盗んで、その上蹴る。)

(89) <u>晴彦に車椅子を押されたおばあちゃんは</u>、外の風に触れてすっかり上機嫌で、さっきから一人でおしゃべりしている。 <その日のまえに>(← 晴彦がおばあちゃんの車椅子を押す。)

(90) <u>父親はいつもいじめっ子たちに</u>からかわれ、<u>ズボンとパンツを脱がされて</u>いる。脱がせたパンツをいじめっ子たちは井戸みたいな形をした地獄の口に放り込む。くいま、会いにゆきます>(← いじめっ子たちが父親のズボンとパンツを脱がす。)

예문 (84)~(90)에서 X와 Z 名詞句는, 사람 또는 사물과 그 所有物이라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分離的인「所有物」의 관계에 있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문 (84)의「商店街」와「客」는, 사물과 그 사물에 있어서 분리 가능한 所有物의 관계에 있고, (85)의「話者(私)」와「お金」, (86)의「美佐江」와「服」, (87)의「博士」와「これ(野球カード)」, (88)의「男の子」와「箱」, (89)의「おばあちゃん」과「車椅子」, (90)의「父親」와「ズボンとパンツ」에 서는 사람과 분리 가능한 所有物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예문(90)의 Z는 X의 付着物28)이라는 소유관계에 있다고 할 수있다.

3. 2. 2. 2 Z가「關係者」를 나타내는 類型

- (91) 私が挨拶をするとご両親は満面に笑みを浮かべて喜んでくれたんだけど、彼女は照れているのか、園で見せる顔とは違って親に甘えているような、あるいは親を見られるのが恥ずかしいとでもいうのかな、私には理解できない気持ちだけれど、その場を早く立ち去りたいとでも言いたげな顔をしてた。 <愛をください> (← 私は彼女の親を見る。)
- (92) 彼が自分の過ちを悔いているのはよくわかる。だけどいくら謝られても、反省の弁を聞かされても、<u>母親を殺された無</u>念さは消えない。 <手紙>(← 彼が(私)の母親を殺す。)
- (93) あなたに恋をしているというわけだはないんだけれど、なんだか<u>父親を取られる</u>ようなさびしい感情に支配されてしまって、<u>リリカ</u>の胸の内に嫉妬の嵐が吹き荒れていました。
 〈愛をください〉
 (←(誰か)がリリカの父親を取る。)

²⁸⁾ 丁(1999)은、「着ている服、付いているもの」등을「付着物」이라 부르고 있다.

(94) それでも<u>城木は</u>やはり<u>身内をほめられた</u>ような嬉しさを覚えた。 <楡家の人々>(← (誰かが)城木の身内をほめる。)

예문 (91)의「彼女」와「親」, (92)의「話者(私)」와「母親」, (93)의「リリカ」와「父親」, (94)의「城木」와「身内」에서 X와 Z는「關係者」라는 소유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所有物」이나「關係者」와 같이 X와 Z 名詞句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유관계가 分離的일 때,「所有者受動」의 Z는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주어 X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으로, X와 Z 名詞句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소유관계, 즉 X와 Z의 분리가능 여부를 바탕으로「所有者受動」을 크게 非分離的인 유형과 分離的인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ヲ格 名詞句 Z의 意味的 屬性의 차이에 따라 非分離的인 유형을 다시「部分」및「側面」으로 세분하고, 分離的인 유형은「所有物」및「關係者」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以下에서는, X와 Z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用例를 分析하여「所有者受動」에 관한 例文을수집하였다. 이러한 例文들을 바탕으로 X를 有情名詞인 경우와 無情名詞인경우로 나누어, X와 Z사이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의미관계를 서술해 나가려고한다.

3. 2. 3 X의 有無情性에 따른 語彙的 意味關係

3. 2. 3. 1 X가 有情名詞인 경우

a. X와 Z의 관계가 非分離的인「部分」

X가 有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非分離的인「部分」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Z에「身体部分」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身体部分」을 나타내는 명사란, 일반적으로 頭部, 胴体, 手・足, 内臓・膜・筋肉, 皮・毛, 骨・歯・爪등, 血・分泌物・排出物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身體部分」을 나타내는 名詞의 例: 全身, 上体, 半身, 肉体, 急所, 頭, 首, 顔, 頬, 目, 瞼, 鼻先, 口, 耳, 舌, 胸, 背中, 腹, 腰, おしり, 手, 両手, 腕, 足, 指, 脳, 胃, 肝, 皮膚, 髪, 骨, 歯, 爪, 血, 肘, 尻の手………

- (95) 寺尾に<u>腕</u>を掴まれ、直貴は引っ張り上げられた。「四人でがんばってくれ。期待してるから」直貴はいった。 <手紙>(← 寺尾が直貴の腕を掴む。)
- (96) 両手を封じられた喜美子は、喉の奥で笑い声をもらいながら手を振りほどこうともがき、 もがきながらも唇ははなそうとしないのだった。 <東京タワー>(← (誰か)が喜美子の両手を封じる。)

b. X와 Z의 관계가 非分離的인「側面」

X가 有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非分離的인「側面」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Z에 주로「事」를 나타내는 명사와「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事」는 心, 感覺, 感情, 表情, 意向, 言動, 動作, 生活, 行動, 作用, 音, におい いるい 語彙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사이다.

「事」를 나타내는 名詞의 例: 内意, 意向, 空想, 心, 競争心, 感情, 気持, 意識, 興味, 好奇心, 希望, 期待, 誇り, 表情, 軽率, 失敗, 音, 声………

- (97) 彼女は大木の熱演にやや心を動かされたようだった。「じゃあ残っていようか」<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大木の熱演が彼女の心を動かす。)
- (98) 直貴は彼女と話していると、自分の中で眠っていた何かが呼び覚まされるような気がした。あれほど自分にいい聞かせ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直貴は彼女にひかれていく気持を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彼女は自分に好意を持ってくれている、という確信もあった。 <手紙>
 (← 彼女が直貴の気持をひく。)
- (99) 由記は皿に気を取られることなく、笛をピーと鳴らしていたガスを止め、二階へ駆け上がった。 <タイヨウのうた>(← 皿が由記の気を取る。)

「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名詞는, 存在, 類·系, 関連, 性質, 状態, 形状, 数量. 場. 時間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가진 것이다.

「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名詞의 例:存在,時間,将来,姿,調子,弱み,素姓, 視界,裏,両側,秘密,………

- (100) つまんないんだもん、もてないんだもんで不定されてしまうようなものなど、初めから無いも自然ではないのか。伊藤友子は、もっと昔から、<u>存在</u>を不定されていたのだ。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 (← (誰か)が伊藤友子の存在を不定する。)

(101) 猪原先生にどうも木場さんとの<u>関係</u>を怪しまれているらしく、お遊戯会の打ち合わせの 席で他の先生たちを前にして、「園児の父親に色目をつかっているでしょ」と指をさ されてしまった。 <愛をください> (猪原先生が(私)の木場さんとの関係を怪しむ。)

(102) 考えているのを邪魔されるのは、首を絞められるより苦しいんだ。

<博士の愛した数式>

(← (誰か)が(私)の考えているのを邪魔する。)

c. X와 Z의 관계가 分離的인「所有物」

X가 有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分離的인「所有物」이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人工物」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人工物」을 나타내는 名詞는, 作品, 資科, 衣科, 建造物, 道具, 薬品이라는 語彙的인 意味를 가진 것이다.

「人工物」 量 나타내는 名詞의 例: タイ, 袖, 靴のかかと, 裾, 靴, 服, スカート, ズボン, パンツ, 義歯(入れ歯), 答案, チケット, バック, 姿, 絵, 写真, 鬘………

- (103) <u>答案</u>を返された時の脇山の様子ときたら、周囲の呑気な慰めなど、まったく受けつけないかのように青ざめていた。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 (← (誰か)が脇山の答案を返す。)
- (104) もちろん世の中にはいろんな不快なこと気にくわないことがあるけれど、僕の場合<u>顔写</u> <u>真</u>を撮られるくらい嫌なことはない。 <村上ラヂオ>

(← (誰か)が僕の顔写真を撮る。)

(105) 第一に、野村は、自分のカツラを気づかれていないとでも思っているのだろうか。

<空中ブランコ>

(← (誰か)が野村のカツラを気づく。)

d. X와 Z의 관계가 分離的인「關係者」

X가 有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分離的인「關係者」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親族」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親族」을 나타내는 명사의 例: 父親, 兄弟, 身内, 夫, 妻, 孫, 祖父, 祖母, 父, 母………

(106) あるものは子を救われ、あるものは親を助けられ、あるものは兄弟を救われた。

<平賀源内>

(← (誰か)があるものの子を救って、(誰か)があるものの親を助けて、(誰か)がある ものの兄弟を救った。)

3. 2. 3. 2 X가 無情名詞인 경우

a. X와 Z의 관계가 非分離的인「側面」

X가 無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非分離的인「側面」의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事」를 나타내는 명사와「抽象的인 關係」를 나타내는 명사 등이 온다.

「事」 를 나타내는 名詞의 例: 町, 時, 事件, 名, 働き, 興味, 弱点, かおり, 空港, 刻印과 같은 無情名詞.

- (107) なかなか親思いの娘じゃないか、母さん、と思う一方、人は、自分の体に残された 他人の<u>刻印の威力</u>を死というものを間近に感じた時に思いしるのだと、ぼくは、改め て感じた。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 (← 他人が自分の体に刻印を残す。)
- (108) ユリの花はその<u>香り</u>をかき乱された。 <ツキノ>(← ユリの花の香りをかき乱す。)

「抽象的 關係」를 나타내는 名詞의 例: 家,部落,村,数台の車,入江,彼 女の家,戸,心臓,首,脳,行く手,周囲,四方,南側,まわり,根本,日本,言 葉와 같은 無情名詞.

- (109) 舗装された道はとっくに途切れ、車は時おり柔らかい赤土に<u>足29)</u>を取られそうになる。 <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柔らかい赤土が車の足を取る。)
- (110) この町で生まれ、この町で死ぬのだな、と考えると<u>左右</u>を海で囲まれたこの北国の港町にまるで自分の一生を投影させたかのような悲しみを重ね合わせてしまうので
 - す。
 <愛をください>
 - (← 海が北国の港町の左右を囲む。)

a. X와 Z의 관계가 分離的인「所有物」

X가 無情名詞일 경우, Z가 X의 分離的인「所有物」이라는 소유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Z에「部分」을 나타내는 명사와「人工物」을 나

^{29) (102)}의「足」는, 언뜻 身體部分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身體의 어떤 한 部分의 개념보다는 「어떤 것에 의해 발목을 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抽象的인 概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側面의 한 유형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타내는 명사가 온다.

「部分」을 나타내는 名詞의 例:体,死体,唇,皮膚,机,本,シャワー,肉,頭蓋骨,薄皮,脚,葉,水,養分과 같은 無情名詞.

- (111) 僕と浅井エリとのあいだには透明なスポンジの地層みたいなものが立ちはだかっていて、僕の口にする言葉は、そこを通り抜けるあいだにあらかた<u>養分</u>を吸い取られてしまう。 <アフダーダーク>
 - (← 透明なスポンジが言葉の養分を吸い取る。)
- (112) 木は一枚きりのうすい葉をいまにも風にもぎとられ、とばされそうに見えた。

< ノブヨ>

(← 風が木の葉をもぎとる。)

「人工物」을 나타내는 名詞의 例:家,医学部,市場,人形,屋根,壁,病院,道路,服와 같은 無情名詞.

- (113) <u>病院</u>を焼かれた医学部の窓の破かれた仮教室のなかで、時として自転車にのって 仁川の白い路を宝塚に… <黄色い人>
 - (← (誰かが)医学部の病院を焼く。)

을 받는지의 기준에 따라「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아니면「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처럼「所有者受動」은,直接受動과 間接受動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때문에 그 두 수동문의 境界線上에 위치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하위분류라 하더라도 분류의 境界線에 접해 다른 유형과 類似性,連續性을 보이며 양쪽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所有者受動」은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 존재로, 일본어의 수동을 直接・間接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정할 때「所有者受動」의 명확한 분류가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第 4章 結論

일본어 수동에 있어서 각각의 하위유형이 서로 어느 정도의 類似性과 連續性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 의해, 그 하위유형 설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우선, 수동의전반적인 분류방법을 形態論的, 意味論的, 構文論的, 形態와 意味論的, 構文과意味論的, 構文과 意味의 折衷的인 관점의 6가지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중 構文과 意味의 折衷的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必須構成要素의 수의 增減여부를 나타내는 構文的인 면과, 수동문의 주어가 동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받았는지에 관한 意味的인 면을 절충하여, 수동을「直接受動」「間接受動」「所有者受動」으로 나누어, 그 의미・용법을 정리하였다.

「直接受動」은 능동문과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같고, 直接受動文의 主語(が格)는 능동문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間接受動」의 必須構成要素는 基本文에 비해 그 수가하나 증가하고, 主語는 基本文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所有者受動」은 必須構成要素에 있어서 基本文의 必須構成要素의 수에 비해 그 수가 하나 증가하였지만,「所有者受動」의 主語는 基本文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특징을모두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所有者受動」에 대해 각각의 선행연구에서의 설정방법의 相異点에 착안하여「所有者受動」의 분류방법 및 위치설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의미를 규정하고 세부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所有者受動」의 세부유형 설정에 있어, 構文的으로 전체와 부분에 해당하는 X와 Z의 名詞句가 非分離的인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分離的인 관

계에 있는가를 구분하고, X와 Z名詞句 사이에서 보이는 意味的 상관관계 등을 기준으로 삼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X와 Z가 非分離的인 소유관계를 가진 유형으로, 이러한 유형을 다시 세분해 보면「部分」과「側面」으로 하위분류된다. 두 번째는 X와 Z가 分離的인 소유관계를 가진 유형으로 이러한 유형은「所有物」과「關係者」로 하위분류 할 수 있다.

X와 Z가 非分離的인 소유관계를 가진 유형과, X와 Z가 分離的인 소유관계를 가진 유형의「所有者受動」을 意味的인 면에서 분석해 보면, 前者는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수동문의 주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直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後者는 동사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Z이고, 수동문의 주어는 간접적인 작용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間接受動」에 가까운 수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X와 Z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의미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用例分析을 통해 얻은 다수의「所有者受動」의 例文을 바탕으로, X의 有無情性에 따라 X와 Z사이에서 나타나는 語彙的인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결론적으로「所有者受動」은、「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必須構成要素의 수가 基本文에 비해 하나 증가했다는 점은「間接受動」에 가깝다 할 수 있겠고, 수동문의 주어가 기본문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直接受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所有者受動」은「直接受動」과「間接受動」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두 수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典型的인「直接受動」과 典型的인「間接受動」을「所有者受動」의 兩極端에 두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부분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所有者受動」을 일본어 수동문의 독립적인 한 유형으로 인식하여「直接受動」・「間接受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 위치를 설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直接受動」과「間接受動」의 構文的, 意味的인 특징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형으로써,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所有者受動」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斷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본어 수동의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서「所有者受動」은 분명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차후에도 이에 따른 연구가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I. 단행본(單行本)

鈴木重幸(1972).『日本文法・形態論』. むぎ書房

三上章(1972)、『現代語法序説』、刀江書院、くろしお出版

岩淵匡(1983),「受身・可能・自発・使役・尊敬の助動詞」『品詞別日本文法講座』8. 明治書院

松下大三郎(1974),『改選標準日本文法』,中文官書店,勉誠社

(1989)、『標準日本口語法』、中文官書店、勉誠社

堀口和吉(1982),「日本語の受動表現」『日本語・日本文化』11, 大阪外国語大学研究留学生別科

寺村秀夫(1982)、『日本語シンタクスと意味 I』、くろしお出版

(1987)、『日本語の文法(上)』、国立国語研究所

佐久間鼎(1983)、『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厚生閣.増補版、 くろしお出版

黒田成幸(1985),「受身文についての久野説を改釈する— 一つの反批判」 『日本語学』4-10, 明治書院

久野暲(1986)、『新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益岡隆志(1987)、「受動表現と主観性」『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1991),「受動表現と主観性」『日本語のボイスと他動詞』, くろしお出版

森山卓郎(1988)、『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森田良好(1977)、『基礎日本語』、角川書店

(1981)、「受身・使役の言い方」『講座日本語教育9』、 早稲田大学教育研究所

(1990)、『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工藤真由美(1990),「現代日本語の受動文」『ことばの科学 4』, 言語学研究会編. むぎ書房

仁田義雄(1992),「持ち主の受身をめぐって」『藤森ことば論集』, 精文當 池原悟 外(1998),『日本語語彙体系1 意味体系』, 岩派書店 国立国語研究所(2004),『分類語彙表』, 增補改訂版, 大日本図書

Ⅱ. 學位 및 學術誌 掲載 論文

- 丁義祥(1999), 「「持ち主の受身」と"목적어 있는 피동"」, 『日語日文學研究』34号, 韓國日語日文学会, p.281-304
- 丁義祥(2000), 「日本語受身文の体系と下位類型」, 『日本学報』45号, 韓国 日本学会, p.163-181
- 裴銀貞(2000), 「持ち主の受身とその異なる形について」, 『日語日文学』第 14輯, 大韓日語日文学会, p.35-50
- 兪長玉(2002), 「日本語 受動의 研究와 分類에 관한 考察」, 『日本語文學』 第18輯, 日本語文学会, p.183-204
- 大塚俊秀(2004), 「「持ち主の受身」は直接受身か間接受身か?」, 『日本學報』第58輯, 韓国日本学会, p.225-242
- 林春政(1980),「韓・日両語の受身文に関する考察-日本語の受身文の分類とそれに対応する韓国語訳を中心に-」,碩士學位論文,漢陽大學校大學院
- 金南秀(1996),「日韓 受動文의 對照考察」,碩士學位論文,哲明大學校 大學院

【用例出典】

『愛をください』 つじひとなり 新潮社

『アフターダーク』 村上春樹 講談社

『1リットルの涙』 木藤亜也 幻冬舎

『いま、会いにゆきます』 市川拓司 小学館

『蹴りたい背中』 綿矢りさ 河出書房新社

『空中ブランコ』 奥田英朗 文芸春秋

『その日の前に』 重松清 文芸春秋

『タイヨウノうた』 天川彩 ソニーマガジンズ

『手紙』 東野圭吾 文芸春秋

『芥川賞全集第三巻』 「平賀源内」 文芸春秋 桜田常久

『芥川賞全集第十一巻』「伸予」 文芸春秋 高橋揆一郎

『東京タワー』 江国香織 新潮社

『夏の流れ』 丸山健二 講談社

『博士の愛した数式』 小川洋子 新潮社

『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山田詠美 新潮社

『村上ラヂオ』 村上春 樹新潮社

『白い人・黄色い人ほか二編』 遠藤周作 講談社

『砂の女』 安部公房 新潮文庫

『アイム ソーリー、ママ』 桐野夏生 株式会社集英社

『キッチン』 吉本ばなな 角川文庫

『ラヴレタ-』 岩井俊二 角川文庫

『楡家の人々(上・下)』 北杜夫 新潮社

『ブンとフン』 井上ひさし 新潮社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버 20068041 과 정 석사 한글 : 박슬기 한문 : 朴瑟婍 영문 : Park Seul-gi 성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주공@ 202동 1103호 주 연락처 E-MAIL: cottoncandy 57@hotmail.com 한글 : 日本語 受動文의 下位類型에 關한 硏究 논문 영어 : A Study on Sub-categories of Japanese 제목 Passive Sentenc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9년 01월 일

저작자 : 박 슬 기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